



‘차라리’와 ‘그래도’

오늘은 ‘세계 가난한 이의 날’입니다. 오늘 복음은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과 여러 재앙을 예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시작으로 거짓 그리스도의 등장, 전쟁, 큰 지진, 기근, 전염병 그리고 무서운 일들과 큰 표징들이 일어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도 살다 보면 누구나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은 절망의 때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달자 시인의 글을 옮겨 적어 봅니다. 신달자 시인은 대화 중에 수 차례 “차라리 안 하고 말지!” “차라리 헤어지고 말지!” “차라리 죽고 말지!” 하면서 삶의 한 부분 부분마다 ‘차라리’라고 말하는 이의 얘기를 들으며 한 때 자신도 ‘차라리’를 연발 하며 살았던 기억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시인은 ‘차라리’ 하고 부정하기 보다 ‘그래도’ 하면서 희망을 찾았던 것은 기도의 힘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김승희 시인의 “그래도라는 섬에 살고 싶다”는 시를 적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젖은 낙엽보다 더 낮은 곳에/ 그래도라는 섬이 있다/ 그래도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도 사랑의 불을 꺼트리지 않는 사람들...”

세상이 끝장날 것만 같은 시기를 겪더라도 “인내로써 생명을 얻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인내는 가끔 시련을 동반하지만 하느님께 대한 희망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젖은 낙엽보다 더 낮은 곳에 사는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십니다. 신달자 시인도 ‘차라리’가 아니라 ‘그래도’는 언제나 자신에게 희망의 공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담화문 첫 머리에 “가련한 이들의 희망은 영원토록 헛되지 않으리라”(시편 9,19) 하시면서 주님께 대한 신앙은 우리의 불안한 삶 안에서 잃어버린 희망을 되찾아 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말라기 예언자도 유대인들이 유배에서 돌아왔을 때 기쁨과 열정이 있었지만, 그것도 잠시뿐 또 다시 절망에 빠져 들자 주님께 대한 신뢰를 가져라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실행하실 것이라고 하시면서 ‘차라리’가 아니라 ‘그래도’ 살아가는 이들에게 힘과 용기, 희망을 주십니다.

“너희에게 의로움의 태양이 날개에 치유를 싣고 떠오르리라.”(말라 3,20)



공소회장단 협의회

문산공소, 죽장공소, 옥봉공소... 낯설면서도 친숙한 이 이름들은 복음이 전해지고 교구가 설정되기 전, 초기에 설립된 본당들의 모태가 된 공소들입니다. 문산본당(1905년), 함양본당(1913년), 옥봉동본당(1926년)은 모두 공소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1998년 74개였던 교구 내 공소들은 본당으로 승격되거나 폐쇄되어 2019년 현재 54개로 줄어들었지만 귀농귀촌 인구의 증가로 활기를 되찾고 있는 곳도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1990년대는 공소를 위한 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입니다. 1989년부터 2004년까지 공소 교우들을 위한 월보 『두메』가 발행되었고, 몇몇 공소에는 선교사가 파견되었습니다. 특히 2003년은 <농어촌 선교의 해>로 선포되어 농어촌 선교 후원회와 공소 소공동체 운동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구 내 본당과 공소의 자매결연을 통해 도농 간 교류를 확대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공소 신자 만남의 날'을 개최하여 교구 내 공소 신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활성화를 위한 여러 활동의 바탕에는 공소 지도자들과 공소 선교사들의 숨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공소 지도자들은 자체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선교사들과 함께 공소 사목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5년 『나날이 기쁜날』의 발행에 따른 공소 사목지 『두메』의 폐간과 공소 선교사의 철수 그리고 농어촌 인구 감소에 따른 공소 신자수의 감소로 주춤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 공소 지도자 협의회는 그 명칭을 '공소회장 협의회'로 변경하고 '공소 활성화를 통하여 공소와 그 지역 복음화를 위하여 노력하며, 공소 상호 간의 일치와 낙후된 공소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설립 취지를 밝히며 정식 인준을 받아 재기를 도모하였습니다. 2018년 공소 지도자 연수 간담회에서는 그간 지속적으로 요청된 '지구별 회장단 구성'을 받아들여 공소 위치와 지역을 고려한 4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지역별 대표가 협의회 부회장직을 맡기로 하였습니다.

협의회 회장단들은 올해부터 분기별 모임을 통해 자주 만나 소통하며 여러 활동들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으고 있는 연회비로 공소의 신축 및 증축·보수공사를 지원하고, 공소 밖으로도 눈을 돌려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있었던 연수에서 공소지도자들은故 김수환 추기경의 사랑과 나눔 공원, 마원성지 등을 순례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명을 되새겨 보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다짐하였습니다.

공소는 교구 신앙의 모태라 할 수 있습니다. 도시화된 사회 속에서 자칫 소외되기 쉬운 공소 교우들을 위한 교구 및 본당 차원의 사목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때입니다. 공소회장 협의회는 교구 설정 이전부터 오랜 시간을 지켜온 많은 공소가 계속해서 그 역사와 신앙을 간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박윤식 에밀리오 • 수필가

흔히 일본인들의 국민성은 정직, 친절, 근면이란대. 몇 번 일본을 다녀온 분들도 대체적으로 수긍한다. 그러나 저들 국민성은 어찌면 그렇다 해도 그들 국가의 정체성은 좀 치졸하다. 조폭처럼 힘으로 약자를 누르고 야비하게 강자와 결탁해 이웃을 얹잡아보기 일쑤다. 특히 아베 정권이 이에 딱 걸맞다. 이렇게 일본의 국민성이 다소 본받을 만하다면 우리 국민성은? 긴 역사를 속속들이 넓게 들여다 보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은근과 끈기가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민성으로 내세울 수 있으니. 그 술한 외침도 잘 견뎌낸 게 참 대견하다. IMF 경제 위기를 금 모으기로 극복했다. 아시아권에서는 영영 불가능할 것 같은 월드컵 축구 4강 신화도 달성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자신을 좀 비하하는 습성이 있는 것 같다. 외제면 다 좋다는 일부 생각을 보아도 그렇다. 이런 사대주의 내지는 패배 의식은 이제 버릴 때라 여겨진다. 이번에 저 못된 아베가 우리에게 이를 깨우쳐 준다. 그의 경제 침략을 일제 불매와 아베 보이콧이 이를 강하게 뒷받침한다. 우리는 지금 각종 가전제품, 메모리 반도체 칩, 조선, 자동차, 중화학 분야에서 일본과 대등할 만큼 괄목할 수준이다. 지금껏 수입에 의지했지만, 자체 개발 능력도 충분히 보유했다. 그간 이를 좀 등한시켰지만, 수입 다변화로 일본 종속도 탈피할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무분별한 외제 선호만 버린다면야, 이번 일본의 경제 불법 침략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게다.

사실 아베는 침략 근성의 야욕을 가진 인물이다. 이럴수록 우리는 더 강하게 그가 단행한 만행을 원상 복구할 때까지 계속하여 대처해 나가자. 이번에 그의 만행에 우리가 흐지부지하게 마무리하거나 중단하면, 저들은 우리를 무시해 야금야금 더 침탈하며 독도는 물론 제주도까지 눈독을 톡톡히 들일 거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번에 북과 공조해 한반도 평화구축을 이룩하고 단결된 한민족의 은근과 끈기로 아베의 콧대를 단단히 꺾자. 우리는 금 모으기로 IMF 위기를 극복했고, 온 국민이 붉은 악마로 변신해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룩했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우리말과 우리글을 가진 국민이다. 우리말과 글을 뺏기지 않도록 아베의 못된 만행을 이번에는 단단히 이겨보자. 우리는 할 수 있다. 은근과 끈기로 이 난국을 차분히 풀어가자.



Missa(미사)가 끝나면 missa(파견)가 시작됩니다

It'e가시오, missa est 여러분은 파견되었습니다.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미사를 끝내는 공식 말은 라틴어로, "It'e, missa est"이며, "미사가 끝났으니 가도 좋습니다."라는 의미로 해석한다. 오늘날 단순히 미사가 끝났으니 일상사로 되돌아가라는 의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소극적이고 충분하지 않다. 그리스도인들은 미사에 참석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사에 참석한 이들이 듣게 되는 "가십시오"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사도직에 대한 파견의 의미로 재해석해야 할 것이다. (조학균, 그리스도와와의 만남, 미사)

하느님께서 파견하십니다

성부께서는 성부에게서 파견되어 오셨다. 성부께서는 성자 안에서 천지 창조 이전에 우리를 뽑으시어 당신 자녀로 삼으시기로 미리 정하시고, 당신 뜻에 따라 성자 안에서 만물을 새롭게 하고자 하셨다. (에페 1,4-5,10 참조)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성부의 뜻을 이루시려고, 지상에서 하늘나라를 세우기 시작하시고 성부의 신비를 우리에게 계시하셨으며, 당신의 순명으로 구원을 성취하셨다. (교회헌장 N.3)

그리고 성부께서 성자께 지상에서 이루시도록 맡기신 일(요한 17,4 참조) 성취된 다음, 오순절에 성령께서 교회를 끊임없이 거룩하게 하시도록 파견되셨다. 또 이렇게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성부께 가까이 나아 가는 것이다. (에페 2,18 참조) 이 성령께서는 바로 생명의 영, 곧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이시다. (요한 4,14; 7,38-39 참조) (교회헌장 N.4)

유일한 중개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믿음과 사랑과 사랑의 공동체인 당신의 거룩한 교회를 이 땅 위에 가시적인 구조로 세우시고 끊임없이 지탱하여 주시며 교회를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진리와 은총을 널리 베푸신다... 그리스도께서는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찢긴 마음을 싸매 주며"(루카 4,18 참조) "잃은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러"(루카 19,10) 하느님 아버지에게서 파견되셨다. 이와 같이 교회도 인간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감싸 주고, 또한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자기 창립자의 가난하고 고통받는 모습을 알아보고, 그들의 궁핍을 덜어 주도록 노력하며, 그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고자 한다. (교회헌장 N.8)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성부에게서 파견되신 것처럼 그렇게 그리스도께서도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을 파견하시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며 하느님의 아들께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사탄의 세력과 죽음에서 해방시키시고 아버지의 나라로 옮겨 주셨다는 소식을 알리게 하셨을 뿐 아니라, 그들이 선포하는 구원 활동을 모든 전례 생활의 중심인 희생 제사와 성사들을 통하여 수행하게 하셨다. (전례헌장 N.6)

거룩한 미사(Missa), 구원의 신비를 이루는 이 전례는 일상 생활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수행하도록 신자들을 파견(missio)함으로써 끝나기 때문이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N.1332)

파견 축복

하느님 말씀과 성사로 힘을 얻은 그리스도인이 사회로 파견되어 나간다는 것은 각자가 직접 하느님 말씀을 전할 기회가 없어도 가능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교 신자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과 참된 형제로서 교제할 때, 자연 하느님 말씀은 그 사람에게서 생생하게 나타나게 된다. 파견의 축복은 이러한 증거의 힘을 주기 위해서이고, 그래서 폐회 인사에서도 폐회를 선언하는 말만이 아니고 파견의 말이 덧붙여져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전례의 장은 좁은 의미에서의 예배의 장이 아니고, 생활의 장 전체로 확대되어야 한다. 미사에서

만이 아니고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가정이나 학교나 사회, 어디에서든지 하느님 말씀 그리고 성사에 의해 살아나게 됨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주일만의 신자가 된다. 주일날, 미사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매일의 생활을 위한 힘을 얻고 사회인으로서 그리스도인임을 언제나 자각하고 살아나갈 수가 있다. (쓰찌야 요시마사, 미사)

끝나지 않은 미사

교회는 복음에 따라 살아가려고 성찬례를 거행한다. 누구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면, 그 때부터 모든 것이 그에게 새로운 형태로 다시 시작된다. 따라서 그리스도에 대한 기쁨이 전례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인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성찬례에서 충만히 받게 된다. 또한 성사적 표징들을 통해 그리스도와 깊고 내적인 친교를 체험하며, 형제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하게 된다. 이러한 체험은 성찬례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제가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하고 선언한 후에도 계속된다.

미사 예식이 끝났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 신앙의 진리와 확신을 전해야 할 사명을 받고 ‘파견’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교회 안에서만 활동하시는 분으로 여기면서 무의미하게 성찬례를 거행한 것과 다름없게 된다. 또한 각자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그분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고자 하는 일관된 마음과 용기를 찾아보기 어렵게 된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파견되는 우리 마음속에는 그 사랑뿐 아니라 예수님처럼 아버지를 향한 흠숭과, 앞으로 만나게 될 사람들을 향한 섬김도 함께 자리 잡고 있다. 가정의 단조롭고 일상적인 활동에서 일터의 고된 노동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을 통해 그 사랑과 흠숭과 섬김이 드러나게 된다. (이노스 비피, 미사의 역사)

신랑 강남 : (신부 이상화를 향해) 나 귀여워? 계속 귀여울 수가 있어요?

최수종 : 있어요. 저 마음을 잊지 말고, 26년, 30년, 50년이 지나도 역시 이 모습이 나한테는 최고다, 귀엽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그렇게 똑같이 살아요. (1911041. 동상이몽2. 너는 내 운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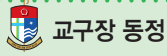
일주일에 한 시간, 또한 하루 30분의 미사 시간, 그 시간만으로 신자다움을 다한 게 아니라, 말씀 전례로 하느님 뜻을 새기고, 성찬전례로 그리스도를 모시며, 파견축복으로 증언되어 이제 일상의 모든 시간을 향해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선포의 말씀에 우렁차게 “아멘”을 외치는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살면, 그렇게 똑같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Garofalo, 예수 승천, 1510-1520, Galleria Nazionale d'Arte Antica, 로마



기억할 선종 사제
김한주(마르코) 신부
2001년 11월 21일



견진성사

일사: 11월 17일(주일)
장소: 산청성당

우리농 추수감사 미사

일사: 11월 18일(월)
장소: 우리농본부

수녀연합회

일사: 11월 19일(화)
장소: 상남동성당

견진성사

일사: 11월 24일(주일)
장소: 월영성당

교구/본당

성모신심 묵상회 6주간

장소: 평거동성당(진주)
일사: 11월 5일(화)~12월 10일(화)
강사

- 3주: 11월 19일(화) 정운호(베드로) 신부
 - 4주: 11월 26일(화) 신동규(다미안 마리아) 신부
 - 5주: 12월 3일(화) 강영구(루치오) 신부
 - 6주: 12월 10일(화) 박지영(살비아) 수녀
- 미사 주례: 주용민(리노) 신부

교구 청년연합 성지순례

일사: 11월 23일(토) 08:00~18:30
장소: 대구대교구 성모당, 관덕정순교기념관
신청마감: 11월 17일(주일) 1인당 2만 원
문의: 청년부 055·249·7065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청년부' 검색

주교님과 함께하는 청년 간부연수

일사: 12월 7일(토) 13:30~8일(주일) 13:30
※ 파견미사 12월 8일(주일) 11:00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대상: 교구·지구 연합회장단, 본당 청년회 간부, 사도직 단체장, 가톨릭학생회 회장단(본당 별 2명, 단체별 1명)
참가비: 1인당 5만 원
신청마감: 11월 24일(주일)까지
문의: 청년부 055·249·7065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청년부' 검색

자살예방교육

일사: 11월 30일(토) 13:00
장소: 교구청
문의: 가정사목국 055·249·7028~9

교3 피정

일사: 2020년 2월 8일(토) 10:30~9일(주일) 15:00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주제: 화해와 용서
대상: 고등학교 졸업생
참가비: 1인당 6만 원/교구사목비 면제본당 3만 원
신청마감: 2020년 1월 29일(수)
문의: 청년부 055·249·7065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청년부' 검색

위원회/기관/단체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11월 기도모임

일사: 11월 18일(월)
성체조배 11:00~11:50, 13:00~13:30
강의 및 미사 13:40~14:30(이청준 신부)
장소: 하대동성당
대상: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봉사자 및 전신자
문의: 010·3903·8234

마리아사제운동 평신도 체나콜로 월기도 모임

일사: 11월 18일(월) 13:30~16:00
장소: 상평동성당(창원출발 차량운행)
문의: 010·9399·5454

수녀연합회

일사: 11월 19일(화)
장소: 상남동성당

교구 전례꽃꽂이회 정기총회

일사: 11월 19일(화) 13:30
장소: 교구청
문의: 담당자 010·9841·8191

민족화해위원회

일사: 11월 20일(수)
장소: 교구청
문의: 055·261·8201

공소회장단 협의회

일사: 11월 21일(목) 10:30
장소: 옥종공소
문의: 사목국 055·249·7021~3

그라츠 자매교구 위원회

일사: 11월 21일(목) 11:00
장소: 교구청
문의: 사무처 055·249·7016~7

레지아 활동계획 발표회 및 레지아 평의회

일사: 11월 23일(토) ~24일(주일) 1박2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문의: 055·249·7115

거제지구 여성협의회 하반기 회의

일사: 11월 28일(목) 11:00
장소: 장평성당
문의: 010·4589·1198

창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식당봉사자 모집

일사: 매월 첫주(월) 10:00~14:00
장소: 창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식당
문의: 055·237·6487

 라파엘 여행사 ◆ 이스라엘, 오르단 10일 12/3 (289만원) 1/22구정(299만원) ◆ 스페인, 포르투갈 10일 (299만원) 1/9, 3/4 ◆ 설특선 이태리 일주 9일 (299만원) 1/21 ◆ 성모발현지 13일 11/26(379만원), 2/3 (389만원) 문의 (주)라파엘 여행사 02)778-8565	 마르코성지순례 제주 성지순례 (3박4일) 28만 원 성지6개, 신부님동행, 특2급 호텔 010-5150-2625 신세계 피부비뇨기과 SHINSEGAE UROLOGY & SKIN CLINIC 피부질환/ 비뇨기질환 · 수술/ 전립선암 검진 원장 김인구 베네딕토 055.757.9888~9 진주시 동진로 172 세원빌딩 3F(자유시장 사거리)	 트라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  딸기잼, 포도잼, 무화과잼, 귤잼 410g 판매단위 - 날병 1박스 20개 2중 세트 10개 1박스 3중 세트 6개 1박스 본당이나 시설,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문의 및 주문 : 010-2652-0706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 (팔용동) 구용출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	---	--	---

수도회

성소자 모임 (개별방문 상시접수)

일시: 11월 23일~24일, 12월 24일~25일
장소: 고성 올리베따노 성베네딕도 수도원
문의: 미카엘 수사 010·8798·2986

기 타

주교회의 '명도회 장학금' 2020년도 지원 대상자 공모

목적: 평신도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 사업과 연구 지원
부문: ①장학금 지원(학부, 석박사 과정)
②학술 연구비 지원(천주교 관련 연구)
신청기간: 10월 16일(수)~12월 16일(월)
접수방법: 마산교구 사무처 055·249·7017, mssamu@hanmail.net
문의: 주교회의의 평신도기금운영위원회 02·460·7533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cbck.or.kr) '알림마당/소식' 참조

2020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 신학과정

원서접수: 11월 11일(월)~2020년 2월 7일(금)
내용: 가톨릭 신학 26과목
대상: 가톨릭 수도자 및 평신도(18세 이상, 학력제한 없음)
문의: 02·745·8339, ci.catholic.ac.kr(원서다운)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올레길, 미사, 기도, 강의

일시: 12월 1일~4일, 12월 6일~8일, 12월 30일~2020년 1월 2일
대상: 개인, 가족, 본당 단체 등
문의: 064·796·9181

꽃동네 대림 침묵 피정

일시: 12월 13일(금)~15일(주일)
장소: 음성꽃동네 사랑의 영성원 피정집
개인 독방 침묵 피정/ 피정비: 12만원
피정지도: 꽃동네 수도사제
특별강사: 오웅진 신부님
문의: 043·879·8500, 010·8880·8286

가정성화를 위한 꽃동네 성령피정

일시: 12월 21일(토)11:00~22일(주일) 16:00
장소: 음성꽃동네 사랑의 영성원
대상: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분들
회비: 5만 원(사전접수자만 피정가능)
문의: 010·5490·5345

성탄 특선 이스라엘 성지순례(평화순례여행사)

일시: 12월 21일(토)~27일(금) 6박7일
순례지: 나자렛, 갈릴래아, 예리고, 베들레헴, 예루살렘
문의: 02·723·3371~4, 010·5385·0565

2020학년도 대구가톨릭대학교 (총장 김정우 요한 신부) 정시모집 안내

전국최대규모 가톨릭계 종합대학
의료보건 및 소프트웨어 특성화대학
입학정원: 2,912명
원서접수: 2019년 12월 26일(목)~31일(화)
입학상담: 053·850·2580

도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도박을 끊고 싶은 본인과 도박문제로 영향을 받고 있는 가족을 위한 익명의 모임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단도박모임: www.dandobak.or.kr
일시: 매(주일) 17:00 장소: 월남동성당
문의: 010·9992·3443



성모신심 피정(성모상 행렬)

일시: 11월 21일(목) 09:30~16:00
(파견미사 15:00~16:00)

장소: 월영성당

강사: 이상재(가스통) 신부 (대구평화방송사장, 강의방송 출연)

대상: 전신자(회비 없음)

문의: 파티마의 세계사도직(푸른군대) 마산교구 010·4848·7106

옥봉동성당 제32대 사목협의회 개편

사목회장: 박희식(야고보)
사목부회장(남성): 윤용오(토마스 아퀴나스)
사목부회장(여성): 윤복희(모니카)
총무: 김창수(토마스 아퀴나스)
기획관리분과장: 문선화(안나)
복음화분과장: 권무선(크리스티나)
가정사목분과장: 서명선(도나타)
전례분과장: 송경인(요안나)
구역분과장: 문우분(베로니카)
복지분과장: 신흥자(마리아)
시설분과장: 박문술(베드로)
청소년분과장: 김경숙(프란체스카)

성령기도회	일시	장소	주제	강사	주례	문의
교구	교구 성령대회 관계로 쉽니다.					
창원지구	11월 18일(월) 19:00	반송성당	무엇이든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홍택훈 회장(하지노, 제주교구)	안찬모 신부(이냐시오, 삼위일체)	010·9421·3377
청년	매주(화) 19:30	교구청별관지하	성령기도회	19:30 묵주기도 / 20:00 기도회(첫째주: 미사, 셋째주: 치유기도)		010·6667·7809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시	장소	문의	비고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11월 16일(토) 14:00	서울 개화동 수도원	010·3800·1579/vocationoh@daum.net	보건 및 복지에 관심있는 젊은이

품격순례 분도여행사 www.bundotour.com 2월 1일 이스라엘 요르단 12월 439만원 2월 10일 유럽 3대 성모발현지 13월 395만원 2월 12일 유럽 3대 성모발현지 13월 395만원 2월 13일 이스라엘 이탈리아 12월 439만원 분도여행사 02.852.8525	마산 예경요양병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예경병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도 011-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우리농 직매장 2호 이용시간: 월~금 09:00~17:00 토 09:00~15:00 가톨릭여성회관 입구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2동 224-7 055.293.5605	쌍용자동차 마산 제일대리점 (마산역 앞) 태도건 다니엘 010.2232.1456 티볼리, 코란도, 렉스턴 스포츠 칸 2020년형 출시·노후 경유차 지원 진해시니어클럽 자연습 천연비누 판매 주문 제조 비누 만들기 강좌 www.jhsc.or.kr 055.541.0126, 055.605.6297	SM 수맥홍(풍)침대 주보 자참 교우 우대 거실 황토소파 평화방송·신문 광고 중 1588-5335 초음파 백내장수술 전문 범안과 의원 창원시 용호동 73-62 정우상가 4층 1-1호 055)285-0307 www.wavelasek.co.kr 원장 범진선 다니엘
--	--	--	--

희망가

이 풍진風塵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푸른 하늘 밝은 달 아래 곰곰이 생각하니/ 세상만사가 춘몽 중에 또다시 꿈같다

술 한잔 거나하게 취한 어르신께서 신세 한탄하며 부르기 딱 좋은 노래입니다. 인간사에 두 다리 쭉 뻗을 수 있는 태평성대가 있었습니까? 언제나 내가 사는 그 시대는 ‘풍진(세상의 어지러운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바람에 날리는 티끌)세상입니다. 이런 겁니다. ‘전 세계 군대 중에서 가장 힘든 군대가 어디인가?’ 하면, 해병대, 공수특전대... 뭐라 뭐라 해도 제일 힘든 곳은 ‘자기가 근무한 군대’입니다.(군 복무하신 분들은 공감하시죠?)

‘희망가’는 원곡이 영국 춤곡을 바탕으로 한 미국 찬송가입니다. 그 후 우리나라에 들어와 제목과 가사가 바뀌고 1930년대에 대중에게 알려지면서 유행합니다. 옛 시절을 추억하는 드라마나 영화(야인시대, 군함도 등)에서 종종 불립니다. 일제 강점기에 유행해서 그런지 가사가 암울하고 곡조도 염세적입니다. 드라마에서도 주로 그렇게 불립니다. 하지만 꼭 신세 한탄하는 노래로만 불리지는 않습니다. 영화 ‘군함도’에서는 소희가 아빠와 함께 춤을 추면서 아주 쾌활하게 부릅니다. 노래 제목 ‘희망가’처럼 희망적인 내일을 암시합니다. 일본제국에 의해 식민지가 되고 군함도에서 지옥 같은 생활을 하지만 결코 해방의 희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독립을 이루고야 맙니다.(물론 피 흘린 선조들의 고귀한 희생으로 이루어낸 독립입니다)



백남해 요한 보스코 신부
교구 사회복지국장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생은 참 귀한 것입니다. 세상만사를 춘몽으로 여기고 허무하게 살 수도 있지만, 춘몽에서 깨어 하느님 나라를 찾는 희망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주일 진례

- 입 당 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재앙이 아니라 평화를 주노라.
나를 부르면 너희 기도를 들어 주고, 사로잡힌 너희를 모든 곳에서 데려오리라.
- 본 기 도** 주 하느님, 저희를 도와주시어, 언제나 모든 선의 근원이신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섬기며, 완전하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 제 1 독 서** 말라 3,19-20ㄴ
- 화 답 송** ◎ 백성들을 올바르게 다스리려 주님이 오신다.
- 제 2 독 서** 2테살 3,7-12
-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다. ◎
- 복 음** 루카 21,5-19
- 영 성 체 송** 저는 하느님 곁에 있어 행복하옵니다. 주 하느님을 피신처로 삼으리이다.